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의 관계*

- 대학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

Personal Traits and Information Behavior: The Case of College Freshmen

이 제 환(Jae-Whoan Lee)**

< 목 차 >

- | | |
|-----------------|----------------|
| I. 서론 : 배경과 목적 | IV. 연구의 주요 결과 |
| II. 연구의 이론적 토대 | 1. 성격적 특성 |
| III. 연구의 설계와 방법 | 2. 정보행태의 특성 |
| 1. 변인과 지표 | 3. 성격과 정보행태 |
| 2. 방법과 절차 | V. 결론 : 한계와 의미 |

초 록

이 연구의 목적은 대학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집단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있다. 이처럼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는 이 연구를 구성하는 핵심 변인이다. 이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 중에서 감성도와 의존도에 주목하고 있으며, 정보행태와 관련하여서는 정보요구, 정보추구, 정보소스, 정보탐색에서 나타나는 행태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연구에 필요한 데이터는 P대학교 2009년도 신입생 162명을 대상으로 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는 성격과 정보행태에서 나타나는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 빈도분석을 하였으며, 이들 두 변인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 Chi-square 검증을 실시하였다. 검증 결과,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에는 부분적이지만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하며, 감성보다 의존성이 정보행태에 보다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구의 결론에서는 후속연구를 위한 방법론적 검증과 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키워드: 정보행태, 정보요구, 정보추구행태, 정보탐색행태, 성격, 성격적 특성, 감성, 의존성, 민족성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personal traits and information behavior theoretically. Personal traits are often represented by "major type of personality found in an ethnic group or society" and measured by both degrees of affection and dependency in this study. In turn, information behavior is used to include unique features in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information source preference, and information searching pattern in library and internet. The data was collected through a survey with 162 college freshmen, and analyzed for both frequency test and Chi-square test. The major research result shows that dependency rather than affection has a statistically meaningful relation with information behavior, in particular, information needs and source preference. Also made are several methodological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Keywords: Information Behavior, Information Need, Information Seeking, Search Behavior, Personality, Personal Traits, Affection, Dependency

* 이 논문은 2008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부산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jwleeh@pusan.ac.kr)

• 접수일: 2009년 4월 22일 • 최초심사일: 2009년 5월 28일 • 최종심사일: 2009년 6월 22일

I. 서론 : 배경과 목적

‘고객 친화적 경영’ 혹은 ‘소비자 중심적 마케팅’은 이미 한 세대 이전부터 서구의 시장경제, 특히 서비스 분야를 지배하는 기저 논리로 작용해 왔다. 정보서비스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새로운 시스템이나 서비스의 개발에 앞서 이용자 연구, 특히 정보행태에 대한 연구는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이미 널리 퍼져있다. 서구의 이러한 경향은 우리 학계와 도서관 현장에도 영향을 미쳐, 국내에서도 새로운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거나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혁신하고자 할 때 이용자 집단의 정보행태를 사전에 연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이용자 친화적인 원칙을 따르고자 하는 우리 학계와 도서관 현장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온 정보시스템에 대한 이용자 집단의 반응은 그다지 긍정적이지 않아 보인다. 이용자 집단의 뜨거운 관심과 호의적인 반응을 기대하며 시스템과 서비스의 개발을 주도했던 주체들의 예측은 대부분 빗나가고 있다. 그들이 목표로 삼았던 잠재적 이용자의 무관심은 예상외로 골이 깊어, 신속한 이용률 증가는 좀처럼 쉬워 보이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시스템의 운용을 위해 비용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만 하는 현장의 고민은 깊어 간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잘못되었기에 이용자 집단의 반응이 기대했던 만큼 ‘친화적’이지 않은 것인가? 먼저, 다음의 인용문에서 그 연유의 일단을 찾아보자:

“..... 우리가 이는 도서관은 감정보다는 이성이 지배하는 공간이요, 행동보다는 생각이 숨쉬는 공간이요, 주관보다는 객관이 넘쳐나는 공간이다. 그런 도서관이 감성이 지배하고, 행동이 앞서고, 주관이 넘쳐나는 우리 국민에게 과연 어떠한 의미로 다가설 수 있었을까? 분명한 것은 도서관은 우리 국민의 정서와 행태와는 거리가 있는 ‘서양에 뿌리를 둔 사회 기관’이라는 점이다. 그러하기에 우리 사회에 수입된지 60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우리 일상의 일부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¹⁾

위의 인용문은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 행태에 맞지 않는다면 관심과 이용의 대상에서 멀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가?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그동안 구축해온 정보시스템들이 우리 국민으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찾아보아도 좋은 것인가? 만약 그렇다면, ‘정보’와 관련된 우리 국민의 정서와 행태는 서구 사람들과 어떻게 다르기에 그들의 것을 본 따서 만들어 놓은 정보시스템에 좀처럼 애착을 보이지 않는 것일까?

의문이 의문의 꼬리를 물지만, 관련 분야에서 그동안 수행되어 온 국내외 연구에서 이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기란 결코 쉽지 않다. 특정 사회나 민족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일상적 정보행

1) 이제환, “한국 도서관정보정책의 추이와 과제,”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0권, 제4호(2008), pp.31-32.

태의 내면과 외양을 '집단의 성격적 특성'과 연계하여 파악하고자 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 연구는 대부분이 이용자의 내면적 성향을 밝혀내는 데는 소홀하고 정보행태의 외양적 특징을 파악하는데 치중하고 있어, 우리 국민의 '내면적 성향과 정보행태 사이의 끈끈한 관계'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 사회 혹은 민족 집단의 내면적 성향이 그들의 정보행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객관적으로 접근해 보고자하는 시도는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물론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커다란 의미를 갖는다. 특히, 그러한 시도가 다양한 민족 집단들을 사례로 하여 '민족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 객관적인 모델의 개발로 이어진다면, 그 작업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연구는 그러한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의 첫 번째 단계에 해당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 한민족을 대상으로 하여(그중에서도 대학생 집단을 사례로 하여),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번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민족 집단의 성격적 특성(즉, 민족성)과 정보행태의 관계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II. 연구의 이론적 토대

이 연구의 이론적 토대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필자가 주목한 영역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필자는 먼저 '한국인의 집단적 성향'을 조사한 연구²⁾에 주목하였고, 이어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성격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³⁾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두 영역의 연구에서 필자가 공통적으로 찾아낸 개념은 '감성'이었다. 감성은 한국인의 집단적 성향을 다른 민족들과 구분지어 주는 핵심적인 성격적 특성 중의 하나였으며,⁴⁾ 동시에 보통 사람들의 정보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의 하나

2) 고영복, 한국인의 성격 : 그 변혁을 위한 과제(서울 : 사회문화연구소, 2001); 국제한국학회 편, 한국문화와 한국인(서울 : 세계절, 1999); 김영명, 신학국론 : 단일사회 한국, 그 빛과 그림자(고양 : 인간사랑, 2005); 조궁호, 한국인 이해의 개념틀(서울 : 나남, 2003); 최재석, 한국의 사회적 성격(서울 : 현음사, 1994); 최상진, 한국인 심리학(서울 : 중앙대학교출판부, 2000); 최준식, 한국인에게 문화는 있는가(서울 : 세계절, 1997) 등.

3) C. Kuhlthau, "A principle of uncertainty for information seeking," *Journal of Documentation*, Vol.49, No.4 (1993), pp.339-355; C. Kuhlthau, "Inside the search process : information seeking from the users perspective," *Journal of American Society for Informaiton Science(JASIS)*, vol.42, No.5(1991), pp.361-371; D. Nahl, "Measuring the affective information environment of Web searchers," *Proceedings of the 67th Annual Meetings*, Vol.41(2004), pp.191-197; D. Nahl and C. Tenopir, "Affective and cognitive searching behavior of novice end-users in a full text database," *JASIS*, Vol. 47, No.4(1996), pp.276-286; P. Wang, et al, "Users' interaction with World Wide Web resources : an exploratory studying using a holistic approach,"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 Vol. 36(2000), pp.229-251.

4)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집단 고유의 성향을 파악하고자 시도한 연구들이 가장 많이 활용해온 논리적 근거는 특성이론(trait theory)이다. 즉, 특정 집단에만 배타적으로 존재하는 요소를 찾아내기보다 집단의 구성원들 누구

였다. 이렇듯 감성적 요소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행태 연구에서는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기존 연구에서는 소홀히 취급되고 있었다.

해외의 관련 문헌을 세밀히 분석해 보면, 정보행태에 있어서 감성이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에 대한 연구는 Kuhlthau와 Nahl을 비롯한 여러 학자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⁵⁾ 정보행태의 인지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 왔던 기존 연구자들과는 달리, Kuhlthau 등은 정보탐색의 과정에서 탐색자의 감성적 상태(즉, anxiety, frustration, or dependency)가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감성의 변화가 탐색행태는 물론이고 탐색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주목하였다. 정보행태에 관한 보편적 모델의 개발을 위해 노력해온 Wilson 또한 이 대열에 합류하여 정보행태 연구에서 자기효능이나 의존성과 같은 감성적 변인에 대한 연구가 절실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자신의 정보행태 모델에 감성적 변인을 보완하고자 노력하였다.⁶⁾

Nahl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행태적 관점에서 '감성부하' 모델을 제시하면서 개인의 정보행태는 개인을 둘러싼 정보환경에 녹아있는 사회문화적 가치(즉, 감성)와 구조(즉, 인지)에 의해서 동시에 영향을 받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정보탐색과 같은 목표 지향적 행위에 있어서 개인에게 탐색의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감성적 요소이며, 이러한 감성적 요소가 탐색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인지 활동에 개입하기 때문에 성공적인 탐색을 위해서는 감성 부하에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⁷⁾ 그는 실제로 자기효능과 낙관주의로 구성되는 '감성대처능력'이 탐색결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러한 감성대처능력이 크면 클수록 인지능력이 설사 낮더라도 그 낮은 만큼을 보충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도 하였다.⁸⁾

이러한 감성적 변인에 대한 연구는 이후 여러 학자들이 참여하면서 더욱 활발해 지고 있는데, 근자에 들어서는 웹 환경에서의 정보탐색과 관련하여 탐색자의 '감성통제능력'이 탐색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입증하려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⁹⁾ 이처럼 정보행태 연구자들의 관심이 인지능력이나 인지유형과 같은 인지적 변인에 대한 탐구에서 불안이나 자기효능과 같은 감성적 변인에 대한 탐구로 확산되면서, 크게 보아, 탐색자의 성격적 특성에 따른 정보행태에

에게나 공통적으로 내재하는 그러면서 단지 그 정도의 차이가 다른 집단에 비해 두드러지는 요소들(즉, traits)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소들은 집단 내에서 비교적 안정적이고 집단이 처한 환경적 상황에 무관하게 구성원들의 행동에 일관성 있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특성이론의 논리이다. 이러한 특성이론의 논리를 차용하여, 이 연구에서는 성격적 특성 중에서 특히 '감성적 요소'에 주목하였다.

5) Kuhlthau, Nahl, 전제논문.

6) T. Wilson, "Models in information behavior research,"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5, No.3(1999), pp.249-270; T. Wilson, "Exploring models of information behavior : the Uncertainty Project," In : T. Wilson and D. Allen, ed., *Exploring the contexts of information behavior*(London : Taylor Graham, 1999), pp.55-66.

7) Nahl, 전제논문(2004), pp.191-197.

8) D. Nahl, "Affective Load," In : K. Fisher, et al., ed., *Theories of information behavior*(Medford, NJ : Information Today, inc., 2005), pp.39-43.

9) Kyung-Sun Kim, "Effects of emotion control and task on Web searching behavior,"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Vol.44(2008), pp.378-385.

서의 차이를 객관적으로 규명하려는 시도가 정보행태 연구의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대부분 개인적 관점에서 탐색자의 성격과 행태 사이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집단적 관점에서 구성원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의 성격적 특성과 행태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하고 있다. 정보행태 연구에서 사회문화적 관점에서의 접근과 해석이 절실하다는 주장을 폈던 Nahl조차도 사회문화적 배경이 상이한 집단들을 대상으로 하여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검증하려는 시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성격이 상이한 집단들 사이의 정보행태에 있어서 의미있는 차이가 발생한다면, 특정 성향의 집단을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할 때 보편적 이론의 적용은 의미를 잃는다.

특히, 情이라고 하는 독특한 정서가 지배하는 한국인 집단의 경우, 국가정보정책의 수립에서부터 단위 정보시스템의 개발에 이르기까지 집단적 성격에 대한 고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침이 없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서구 사회의 모델을 참조하여 개발했던 다양한 정보시스템이 우리 국민의 뜨거운 호응을 얻지 못했던 이유의 일단을 찾을 수 있을지 모른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서구 사회의 관점에서 아무리 좋은 정보시스템이라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정서와 행태에 맞지 않는다면 우리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연구를 통해 필자는 우리 국민의 집단적 성격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국민에게서 두드러지는 성격적 특성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러한 성격적 특성이 우리 국민의 정보행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Ⅲ. 연구의 설계와 방법

1. 변인과 지표

지금까지 설명하였듯이 이 연구의 목적은 집단적 관점에서 드러나는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를 밝혀내는데 있다. 이처럼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는 이 연구를 구성하는 중심 개념이자 핵심 변인이다.

성격적 특성에 대해서는 성격심리학에서 개발한 여러 모델¹⁰⁾ 중에서 '문제해결' 혹은 '의사결정'

10) 성격을 구성하는 요소는 매우 다양하며, 그러한 구성요소에 따라 성격을 유형화하는 논의는 주로 심리학에서 이루어져 왔다. 심리학에서는 사람의 성격을 인식과 판단 방법에 있어서의 차이에 의해 유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인식 방법은 지각과 직관으로, 판단 방법은 사고와 느낌으로 이분화한 후 이러한 단위 속성들을 쌍으로 결합하여 성격유형을 구분하기도 하고, 일반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는 MBTI에서처럼 내향/외향과 인식/판단과 같이 다른 기준들을 추가하여 성격유형을 더욱 세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사람의 성격은 다양한 관점과 기준에 의거하

방식과 연계하여 성격을 유형화하는 방법¹¹⁾을 참조하였다. 구체적으로, Heppner와 Harren의 연구를 비교 검토한 후에 Harren이 제시한 방법을 참조하여 성격적 특성을 나타내는 요소를 추출하고자 하였다.¹²⁾ 그러나 Harren이 제시한 방식대로 성격을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논의를 진행하기 보다는, 집단 전체의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뚜렷한 성격적 요소가 무엇인지를 파악해 내는 방식을 사용하였다.¹³⁾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위해 직관을 따르는 정도(감성도)와 타인에게 의존하는 정도(의존도)를 성격적 특성을 대표하는 핵심 지표로 삼았다.

정보행태에 대해서는 정보학자들 사이에서 공감대를 얻고 있는 “정보요구, 정보추구 및 기피, 정보소스의 이용, 그리고 정보탐색 과정에서 드러나는 제반 특성을 모두 포괄하는 복합적인 개념”으로 접근하였다.¹⁴⁾ 이러한 개념적 정의에 충실하되, 행태적 특징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다음 항목들을 정보행태를 대표하기 위한 지표로 삼았다. 구체적으로, 정보요구에 관한 지표로는 ① 정보요구의 강도와 ② 정보요구의 내용을, 정보추구에 관한 지표로는 ③ 정보추구의 적극성과 ④ 정보추구의 장애요인을, 정보소스에 관한 지표로는 ⑤ 선호도, ⑥ 신뢰도, ⑦ 상대적 선호도, ⑧ 소스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를, 그리고 정보탐색에 관한 지표로는 ⑨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와 ⑩ 인터넷에서의 탐색방법에 대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2. 방법과 절차

연구문제에 대한 논의를 위해 필요한 데이터는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핵심 변인에 따라 두 파트로 나누어 설계하였다. 성격적 특성에 대한 파트는 Harren이 제시한 30개의 문항 가운데서 직관형과 의존형을 가늠하기 위해 개발된 20개 문항을 활용하였다. 이 문항들 중에서 의존형을 가늠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은 원안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직관형을 가늠하기 위한 10개의 문항은 1992년에 고향자가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검사를 위해 수정해 놓은 문항

여 여러 가지로 유형화할 수 있다.

- 11) 주지하다시피 문제해결(problem solving)과 의사결정(decision making)은 정보추구의 동기이자 정보행태 연구에 있어 핵심 개념이다. Donald Case, *Looking for Information, 2nd ed.*(New York : Academic press, 2007), pp.85-88.
- 12) Heppner의 연구가 문제해결유형에 대해 다루고 있지만 유형의 구분보다는 문제해결 능력이나 태도를 측정하는데 적합한 반면, Harren의 연구는 일상에서의 의사결정 방식에 근거하여 사람들이 드러내 보이는 상이한 성격유형을 합리형, 직관형, 의존형으로 구분하여 직접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연구에서 한국인의 성격적 특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설정하고 있는 ‘감성적 요소’를 성격유형을 나누는 주요한 근거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J. Fischer and K. Corcoran, *Measures for Clinical Practice : A Source Book, Vol.2. Adults*(New York : The Free Press, 1987), pp.442-443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심리척도 핸드북 II(서울 : 학지사, 2000), pp.226-228.
- 13) 앞서 특성이론과 관련하여 기술하였듯이 이러한 접근방식이 특정 집단에서 두드러지는 성격적 특성이 그들의 정보행태와 어떠한 관계를 갖는지를 보다 명료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 14) Donald Case. 전거서, pp.5-7.

을 사용하였다.¹⁵⁾ 이렇게 두 지표별로 각각 구성한 10개의 문항에 대해 YES/NO로 답변하게 한 후, 10개 문항 모두에 YES로 답을 하였을 경우 10점 만점을 주는(즉, 문항 당 1점씩 주는) 방식으로 각 지표의 값을 산출하였다.

정보행태에 대한 파트는 앞서 언급한 10개의 지표 값을 측정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개발한 20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으로, 정보요구와 관련하여 6개의 문항을, 정보추구와 관련하여 4개의 문항을, 정보소스와 관련하여 4개의 문항을, 그리고 탐색행태와 관련하여 6개의 문항을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이들 문항에 대한 답변은 문항의 성격에 따라 사지선다형으로 구성하여 4점 척도로 값을 측정하거나(강한 부정=1, 부정=2, 긍정=3, 강한 긍정=4) 순위비교 혹은 조합비교선택 방식으로 구성하여 값을 측정하였다.

한편, 실질적인 설문조사는 2009년도에 P대학교에 입학한 신입생들 중에서 교양과목인 '인간 심리의 이해'와 '정보와 사회'를 수강하는 203명을 대상으로 하여¹⁶⁾ 2009년 3월 25일부터 4월 6일까지 2주에 걸쳐 시행되었다. 설문 종료 후 설문참가자들 중에서 2009년도 신입생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41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62명¹⁷⁾으로부터 수거한 응답지를 최종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데이터 분석은 SPSS 14.0을 이용하였는데, 빈도분석을 통해 표본집단의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에 관한 기초적인 통계량을 확보하였으며, 교차분석(Chi-square 검증)을 통해 두 변인(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을 구성하는 지표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였다.

IV. 연구의 주요 결과

1. 성격적 특성

앞서 설명하였듯이, 표본집단의 성격적 특성은 집단 전체의 감성도와 의존도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해 보니 감성도와 의존도의 평균값은 10점 만점에 각각 5.38과 4.60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평균값은 설문에서 응답자의 배경을 조사하기위해 제시했던 질의(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은?)에 대한 답변 결과와 상당 부분 일치하였다. 가령, 위의 질의에 대한 답변에

15)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편, 전계서, pp.226-228.

16) 대학신입생을 표본으로 선정한 이유 중의 하나는 이번 연구에 이어 후속연구로 추진 중인 다른 민족과의 비교분석을 위해서는 가외변인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물론 지방의 한 대학의 신입생을 사례로 하여 수행한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한국인 전체에 적용하는 것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이 연구는, 앞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연구를 위한 사전연구로서 여기서 시도한 방법과 절차 그리고 파악한 결과는 보다 다양한 인구학적 배경을 가진 집단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행할 때 주요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17) 이들 162명의 배경을 간략히 살펴보면, 성별에 있어서 남녀 비율은 48.1% 대 51.9%이었고, 전공에 있어서는 인문계열이 29%, 사회계열이 37%, 이공계열이 32.7%, 기타 1.2%이었다.

서 자신의 성격이 '감성적'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53.7%인데 비해 '이성적' 밝힌 응답자는 46.3%이었다. 또한 자신의 성격이 '의존적'이라고 밝힌 응답자가 43.2%였으나, '주체적'이라고 밝힌 응답자는 54.9%에 이르렀다. 다음의 <표 1>은 감성도와 의존도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비를 점수(즉, 강도)에 따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 감성도와 의존도에 따른 응답자의 구성 비율(%)

지표 \ 점수	0	1	2	3	4	5	6	7	8	9	10	합계
감성도	2.5	6.2	5.6	7.4	12.3	19.1	14.2	11.0	9.3	6.8	5.6	100.0
의존도	6.8	10.5	11.7	10.5	9.3	9.9	11.7	11.1	9.9	4.9	3.7	100.0

이번에는 위의 평균값을 참조하여 162명의 표본집단을 감성도와 의존도에 따라 각각 3개의 소집단으로 분류하였다. 구체적으로, 평균값이 5.38점인 감성도에 있어서는 0~4점은 저감성 집단으로, 5~6점은 중도 집단으로, 7~10점은 고감성 집단으로 분류하였으며, 평균값이 4.60인 의존도에 있어서는 0~3점은 저의존 집단으로, 4~5점은 중도 집단으로, 6~10점은 고의존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이렇게 분류한 후 집단별 구성비율을 살펴보니, 감성도에 있어서는 고감성 집단이 32.7%(53명), 중도 집단이 33.3%(54명), 저감성 집단이 34.9%(55명)로 나누어졌으며, 같은 맥락에서 의존성에 있어서는 고의존 집단이 41.4%(67명), 중도 집단이 19.1%(31명), 저의존 집단이 39.5%(64명)로 나누어졌다.¹⁸⁾

한편, 이러한 자의적 분류가 객관적 타당성을 갖는지 알아보기 위해, 앞서의 질의(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은?)에 대한 답변을 소집단별 분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다음의 <표 2>는 그러한 비교분석의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에 나타나듯이, 고감성 집단에서 스스로 '감성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5.5%였으며, 저감성 집단에서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4%이었다. 또한, 고의존 집단에서 스스로 '의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6.1%였으며, 저의존 집단에서 스스로 '주체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85.9%에 달하였다. 이들 관계에 대한 통계적 검증을 위해 상관분석을 시도해 보니, 감성도에 따른 집단 구분의 상관계수는 0.518, 의존도에 따른 집단 구분의 상관계수는 0.349로 산출되어 0.01 수준(양쪽)에서 둘 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8) 이러한 소집단으로의 분류는 지표의 값, 즉, 강도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기초통계량의 비교를 통해 밝혀보는데 있으며, 특히, Chi-square 검증을 위해서 명백하게 대립적 위치에 놓여있는 두 개의 집단으로 구분하기 위해서이다.

〈표 2〉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 : 소집단별 분석(%)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											
		이성적		감성적		전체		주체적		의존적		전체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빈도	비율
감성도	고감성	13	24.5	40	75.5	53	100.0						
	저감성	42	76.4	13	23.6	55	100.0						
의존도	고의존							16	23.9	51	76.1	67	100.0
	저의존							55	85.9	9	14.1	64	100.0

2. 정보행태의 특성

그렇다면 표본집단의 정보행태에서는 어떠한 특성이 두드러지는지, 지금부터는 빈도분석의 결과에 기초하여 대표적인 특성에 대해 살펴보되, 집단 전체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두 지표(감성도와 의존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비교하면서 하나씩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 지표인 정보요구의 강도는 ① 일상적인 생활, ② 중요한 의사결정, ③ 복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경우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세 항목에 있어 요구강도의 평균은 4점 만점에 각각 2.53, 2.46, 2.54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응답자의 절반 정도가 세 상황 모두에서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상황에 따른 정보요구의 강도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비해, 성격적 특성에 따라 분류한 집단들 사이에서는 주목할 만한 차이가 드러났는데, 가령, 세 상황 모두에서 의존도가 클수록 정보요구의 강도 또한 커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3 참조).

〈표 3〉 정보요구의 강도 : 기술통계량

	일상생활		의사결정		문제해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감성 집단	2.49	0.64	2.38	0.69	2.60	0.66
저감성 집단	2.45	0.69	2.55	0.57	2.55	0.74
고의존 집단	2.58	0.63	2.51	0.73	2.66	0.69
저의존 집단	2.39	0.68	2.34	0.62	2.39	0.65
전체 집단	2.53	0.66	2.46	0.65	2.54	0.70

두 번째 지표인 정보요구의 내용에 있어서는 상황에 따른 차이는 물론이고 집단별 차이 또한 뚜렷하였다. 먼저, 응답자들의 절대 다수가 “일상적인 생활의 영위”를 위해 선호하는 정보는 경험 정보(유사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요

한 의사결정”이나 “복잡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경험정보보다 전문정보(객관적인 참고자료나 전문가의 의견)에 대한 요구가 상대적으로 컸다. 이러한 차이는 집단별 분석 결과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가령, 경험정보에 선호 경향은 고의존 집단과 고감성 집단에서, 전문정보에 대한 선호 경향은 저의존 집단과 저감성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관찰되었다(표 4 참조).

〈표 4〉 정보요구의 내용 : 상대적 선호도(%)

	정보요구의 내용 : 상대적 선호도								
	for 일상생활			for 의사결정			for 문제해결		
	전문	경험	합계	전문	경험	합계	전문	경험	합계
고감성 집단	30.2	69.8	100.0	58.5	41.5	100.0	60.4	39.6	100.0
저감성 집단	34.5	65.5	100.0	74.5	25.5	100.0	65.5	34.5	100.0
고의존 집단	14.9	85.1	100.0	53.7	46.3	100.0	52.2	47.8	100.0
저의존 집단	40.6	59.4	100.0	81.3	18.7	100.0	70.3	29.7	100.0
전 체 집단	27.2	72.8	100.0	65.4	34.6	100.0	58.0	42.0	100.0

세 번째 지표인 정보추구의 적극성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이 3.43에 이를 정도로 응답자의 압도적 다수(91.4%)가 “필요한 정보를 가능한 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황에 따른 적극성의 차이가 뚜렷하게 부각되지는 않았지만,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추구에서 적극성이 가장 강했던 반면(평균 3.49),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추구에서는 적극성이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평균 3.34). 한편, 집단별 분석에서도, 비록 그 차이가 미미하였지만, 고감성 집단이 저감성 집단에 비해, 고의존 집단이 저의존 집단에 비해 적극성이 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5 참조).

〈표 5〉 정보추구의 적극성 : 기술통계량

	일상생활		의사결정		문제해결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감성 집단	3.36	0.71	3.43	0.72	3.53	0.70
저감성 집단	3.29	0.66	3.40	0.66	3.42	0.53
고의존 집단	3.33	0.75	3.46	0.68	3.45	0.66
저의존 집단	3.30	0.58	3.36	0.68	3.48	0.56
전 체 집단	3.34	0.67	3.42	0.66	3.49	0.61

네 번째 지표인 정보추구의 장애요인과 관련하여서는 응답자의 과반이 넘는 57.4%가 가장 중요한 장애요인으로 ‘자신의 노력부족’을 꼽고 있었다. 이에 비해 ‘정보소스와 탐색방법에 관한 지식부족’을 지목한 응답자는 25.3%, ‘열악한 정보환경’을 지목한 응답자는 13.6%이었다. 이처럼 정보추

구의 장애가 환경의 열악함보다는 자신의 게으름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들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한편, 이러한 경향에 있어 집단들 사이에서도 어느 정도의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가령, 저의존 집단의 경우 '노력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큰 반면에 '지식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은 가장 작았다. 이에 비해, 고의존 집단과 고감성 집단의 경우 '노력부족'보다는 '지식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목한 비율이 다른 집단에 비해 크게 관찰되었다(표 6 참조).

〈표 6〉 정보추구의 장애요인 : 1순위 구성 비율(%)

	정보추구의 장애요인(1순위)				
	노력부족	정보환경	지식부족	탐색비용	합계
고감성 집단	50.9	13.2	<u>32.1</u>	3.8	100.0
저감성 집단	54.5	10.9	29.1	5.5	100.0
고의존 집단	50.7	10.4	<u>34.3</u>	4.5	99.9
저의존 집단	<u>62.5</u>	15.6	20.3	1.6	100.0
전 체 집단	57.4	13.6	25.3	3.7	100.0

다섯 번째 지표인 정보소스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는, 응답자의 44.4%가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로 인터넷의 웹사이트/카페를 꼽을 정도로 인터넷의 위상이 절대적이었다. 인터넷의 뒤를 이어,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기관 순으로 선호도가 나타났다. 이러한 선호도에 있어서 집단들 사이에 주목할 만한 차이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특히, 지인과 전문서적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차이가 뚜렷하였다. 구체적으로, 고감성 집단과 고의존 집단에서는 지인의 비중이 컸으나, 저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에서는 전문서적의 비중이 다른 집단에 비해 월등하게 컸다. 이와는 반대로 고의존 집단의 경우 전문서적은 정보소스로서의 가치를 거의 지니지 못하고 있었다(표 7 참조).

〈표 7〉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의 구성 비율(%)

	가장 선호하는 정보소스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 전문기관	인터넷 웹사이트	무응답	합계
고감성 집단	26.4	17.0	7.5	7.5	41.5	0.0	99.9
저감성 집단	10.9	14.5	<u>14.5</u>	12.7	45.5	1.9	100.0
고의존 집단	<u>26.9</u>	14.9	3.0	10.4	44.8	0.0	100.0
저의존 집단	10.9	14.1	<u>25.0</u>	9.4	39.1	1.5	100.0
전 체 집단	19.8	14.8	11.7	8.6	44.4	0.7	100.0

정보소스에 대한 이러한 선호도가 신뢰도로 그대로 이어지지 않는 않았다. 여섯 번째 지표인 정보소스에 대한 신뢰도에 있어서 가장 뚜렷한 특징은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매우 짙다는 것이었다.

전문서적과 전문가/기관이 가장 신뢰하는 정보소스로서 1위와 2위를 차지하였으며, 선호도에서 1위였던 인터넷은 3위로 처져 '선호는 하지만 그만큼 신뢰하지는 않는다' 특성을 보였다. 한편, 이러한 신뢰도에 있어서 집단들 사이의 차이는 매우 뚜렷하였다. 구체적으로, 저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의 경우 전문서적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보다 월등히 높은 반면에 지인에 대한 신뢰도는 평균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았다. 반대로 고감성 집단과 고의존 집단에서는 지인에 대한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컸으며, 고의존 집단의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도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표 8 참조).

〈표 8〉 가장 신뢰하는 정보소스의 구성 비율(%)

	가장 신뢰하는 정보소스					합계
	지인	대중매체	전문서적	전문가와 전문가기관	인터넷 웹사이트	
고감성 집단	17.0	15.1	24.5	20.8	22.6	100.0
저감성 집단	10.9	16.4	32.7	21.8	18.2	100.0
고의존 집단	17.9	22.4	16.4	22.4	20.9	100.0
저의존 집단	10.9	10.9	39.1	17.2	21.9	100.0
전 체 집단	16.7	15.4	25.9	21.6	20.4	100.0

일곱 번째로 파악한 것은 소스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선호도였다. 크게, 공식소스와 비공식소스, 대중소스와 대인소스로 나누어 각각 상대적 선호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응답자들 사이에서는 공식소스와 대중소스에 대한 선호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상대적 선호도에 있어 집단들 사이의 차이 또한 뚜렷하게 드러났는데, 가령, 저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에서는 공식소스와 대중소스에 대한 선호 경향이 뚜렷하였으며,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감성 집단과 고의존 집단에서는 비공식소스와 대인소스에 대한 선호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표 9 참조).

〈표 9〉 소스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선호도(%)

	소스의 유형에 따른 상대적 선호도					전체
	공식소스	비공식소스	전체	대중소스	대인소스	
고감성 집단	57.1	42.9	100.0	51.4	48.6	100.0
저감성 집단	69.4	30.6	100.0	63.6	36.4	100.0
고의존 집단	58.9	41.1	100.0	52.3	47.7	100.0
저의존 집단	75.5	24.5	100.0	67.3	32.7	100.0
전 체 집단	64.9	35.1	100.0	55.1	44.9	98.2

그렇다면 이들 대학생들은 도서관에 대해서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까? 특히, 도서관을 일상

적인 정보소스로서 인식하고 있는 학생의 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이와 관련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분석해 보니, 응답자의 54.4%가 도서관에 대해 ‘긍정적’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표의 평균값은 2.52에 그쳐 정보소스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는 그렇게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한편, 이러한 인식도는 집단에 따라 대별되는 차이를 보였는데, 가령, 저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에서는 긍정적 시각으로 도서관을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던 반면에, 고감성 집단과 고의존 집단에서는 부정적 시각으로 도서관을 인식하는 응답자가 많았다(표 10 참조).

〈표 10〉 정보소스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 기술통계량

	정보소스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	
	평균	표준편차
고감성 집단	2.40	0.74
저감성 집단	2.69	0.74
고의존 집단	2.40	0.74
저의존 집단	2.63	0.72
전 체 집단	2.52	0.72

정보행태에 관한 조사에서 마지막으로 파악하고자 한 것은 자료를 탐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행태적 특징이었다. 이를 위해,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와 인터넷에서의 탐색방법으로 나누어서 행태적 특징을 조사하였는데,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와 관련하여서는 목록의 활용도,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사서의 활용도에 대해 조사하였으며, 인터넷에서의 탐색방법과 관련하여서는 탐색기능의 활용도, 탐색어의 활용도, 재탐색의 선호도에 대해 각각 조사하였다.

먼저,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에 있어서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태도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보다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관찰되었다. 가령, 목록 활용도의 전체 평균값은 2.66으로 응답자의 58.1%에게서 적극적 성향을 엿볼 수 있었으며, 목록 유용성의 전체 평균값은 2.73으로 응답자의 68%에게서 긍정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사서의 활용도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값이 2.62로 응답자의 57%에게서 적극적인 태도를 감지할 수 있었다. 한편, 집단별 분석 결과에서도 몇 가지 주목할 만한 특징이 있었다. 구체적으로, 고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에서 목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성향이 상대적으로 두드러졌으며, 저감성 집단과 저의존 집단에서는 목록의 유용성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상대적으로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고감성 집단과 고의존 집단에서는 정보탐색 과정에서 사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다 강하게 나타났다(표 11 참조).

〈표 11〉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 : 기술통계량

	도서관에서의 탐색태도					
	목록 활용도		목록 유용성 평가		사서의 활용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감성 집단	2.66	0.81	2.66	0.76	2.75	0.98
저감성 집단	2.60	0.74	2.82	0.75	2.56	0.74
고의존 집단	2.60	0.80	2.66	0.77	2.69	0.84
저의존 집단	2.66	0.70	2.84	0.70	2.66	0.89
전 체 집단	2.61	0.74	2.73	0.72	2.62	0.85

이어, 인터넷에서의 탐색행태에 있어서는 소극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태도가 혼재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탐색기능의 활용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값이 2.44에 불과하여 응답자의 58.6%에 이르는 다수가 탐색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고의존 집단에서 이러한 소극성이 두드러졌다. 탐색어의 활용에 있어서는 전체 평균값이 2.84로 응답자의 69.7%가 ‘복수의 탐색어’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고감성 집단이 가장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탐색의 선호도에서는 전체 평균값이 2.52로 재탐색을 선호하는 응답자(49.3%)와 그렇지 않은 응답자(50.7%)가 엇비슷하였다. 집단별로는 저감성 집단에서만 유일하게 재탐색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관찰할 수 있었다(표 12 참조).

〈표 12〉 인터넷에서의 탐색행태 : 기술통계량

	인터넷에서의 탐색행태					
	탐색기능 활용도		탐색어 활용도		재탐색 선호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고감성 집단	2.47	0.72	2.92	0.70	2.52	0.85
저감성 집단	2.47	0.66	2.84	0.69	2.34	0.83
고의존 집단	2.36	0.67	2.75	0.70	2.60	0.82
저의존 집단	2.55	0.66	2.84	0.62	2.54	0.82
전 체 집단	2.44	0.67	2.84	0.67	2.52	0.83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표본집단의 정보행태에서는 이번 연구의 목적과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몇 가지 특징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보요구와 관련한 특징으로는 ‘요구의 강도’에 있어서 성격적 유형에 따른 집단별 차이가 뚜렷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가령, 감성도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았지만, 의존도에 있어서는 의존도가 커질수록 정보요구도 커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더불어 정보요구의 내용에 있어서

도 평상시에는 경험정보를 선호하지만, 의사결정이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문정보를 선호하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한 집단별 차이도 뚜렷하여, 감성도나 의존도가 클수록 경험정보를, 반대로 감성도나 의존도가 작을수록 전문정보를 선호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둘째, 정보추구와 관련한 특징으로는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의지가 전반적으로 강하지만, 당면한 문제가 복잡할수록 정보추구의 의지가 더욱 강해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정보추구를 저해하는 요인을 '열악한 환경'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노력부족'이나 '지식부족'과 같이 스스로에게서 찾고자 하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집단별 차이도 뚜렷하였다. 가령, 의존도가 작을수록 '노력부족'에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으며, 대조적으로, 의존도 혹은 감성도가 클수록 '정보소스와 탐색방법에 대한 지식의 부족'을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꼽고 있었다.

셋째, 정보소스와 관련하여서는 소스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에 커다란 차이가 있는 점이 부각되었다. 선호도에서는 인터넷이 압도적이었으나, 신뢰도에 있어서는 전문성에 대한 고려가 확연하였다. 이와 관련한 집단별 차이 또한 뚜렷하였다. 가령, 감성도나 의존도가 낮을수록 전문적인 소스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 동시에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에 있어서는 비공식소스나 대인소스에 비해 공식소스와 대중소스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특히 감성도나 의존도가 낮은 집단에서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한편, 도서관을 정보소스로 인식하는 비율은 절반 정도에 그쳤으며, 감성도나 의존도가 낮을수록 도서관을 정보소스로 바라보는 긍정적 시선이 강하였다.

마지막으로 탐색행태와 관련하여서는 도서관목록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실질적인 활용률은 그에 미치지 못하는 모순된 현상을 목도할 수 있었다. 집단별로는 의존도와 감성도가 낮을수록 목록의 유용성을 높게 평가하였다. 탐색 과정에서 사서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지는 높은 편이었으며, 집단별로는 감성도가 높을수록 사서로부터 도움을 구하고자 하는 경향이 짙게 드러났다. 한편, 인터넷과 관련하여서는 탐색기능의 활용에 있어서는 소극적이면서도, 탐색어의 활용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집단별로는 의존도가 낮은 집단에서 탐색기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졌으며, 감성도가 높은 집단에서는 탐색어를 다양하게 활용하고자 하는 태도가 뚜렷하였다. 재탐색을 선호하는 응답자는 절반에 그쳤으며, 집단별로는 감성도가 낮을수록 재탐색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가 짙게 나타났다.

3. 성격과 정보행태

지금까지 기술통계량을 중심으로 성격적 특성과 그에 따른 정보행태에서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러나 한정된 표본에 근거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이론적 타당성을 높으려면 객관성의 담보가 절실하다. 이에 지금부터는 추리통계방법에 근거하여 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 사이의 관계에 대해 밀도

있게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의 논의에서 밝혀진 대로, 이번 조사를 위해 수집한 데이터는 그 성격이 명목척도와 서열척도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모수적 통계방법인 Chi-square 검증법(독립성 검증)을 활용하여, 성격적 특성을 대변하는 두 지표와 정보행태의 특성을 대변하는 10개 지표 사이의 관계를 하나씩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 때, 검증 결과를 기술함에 있어서 지표들 사이의 관계에 대한 귀무가설과 대립가설을 일일이 기술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Chi-square 검증 결과에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과 χ^2 값을 도출하였을 경우에만 가설의 성립 여부를 후술하는 방식을 취하고자 한다.

가. 감성도와 정보행태

감성도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10개의 지표를 대상으로 Chi-square 검증을 시행한 결과, $p \leq 0.05$ 의 수준에서 귀무가설(감성도와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기각할 수 있는 결과는 10건 중에서 단 1건(감성도와 정보소스로서 도서관의 인식도의 관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1건에 대한 기술통계량과 Chi-square 검증 결과를 <표 13>에 정리하였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유의수준 $p \leq 0.05$ 에서 χ^2 의 값이 4.461로 귀무가설(감성도와 정보소스로 도서관을 인식하는 정도는 서로 독립적이다)은 기각되고, 대립가설(감성도와 정보소스로 도서관을 인식하는 정도는 서로 관계가 있다)이 성립되었다.

<표 13> 정보소스로서 도서관에 대한 인식(%)

	부정적	긍정적	합 계
고감성 집단	52.8	47.2	100.0
저감성 집단	32.7	67.3	100.0
합 계	42.6	57.4	100.0
Chi-square 검증결과	$\chi^2 = 4.461, df = 1, p = 0.035$		

이처럼 감성도와 정보소스로서의 도서관에 대한 인식도의 관계를 제외하곤 감성도를 기준으로 검증했을 때 정보행태와의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놓여있는 결과는 검증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성도와 몇몇 지표들과의 관계에 대한 검증 결과는 나름대로 소개할 가치가 있다는 판단에서 여기에 간략히 기술하고자 한다.

먼저, 감성도와 정보요구의 내용에 대한 검증 결과는 $\chi^2 = 3.131, p = 0.077$ 로 나타나 유의수준이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는 $p \leq 0.05$ 를 넘어섰지만, 최소한 $p \leq 0.1$ 의 수준에서는 두 지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관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4>의 기술통계량에 나타나는 대로, ‘일상생활’과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요구의 내용에서는 감성도에 따른 두 집단의 차이가 미미하지만,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요구의 내용에서는 고감성 집단과 저감성 집단 사이의 성향 차이가 뚜렷

하다. 즉, 감성적 성향이 약할수록 전문정보에 대한 선호도가 커지는 반면, 감성적 성향이 강할수록 경험정보에 대한 선호 경향이 뚜렷해지는 것이다.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 두 지표는 나름대로 끈끈한 관계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어, 감성도와 정보소스의 관계에 있어서도 검증 결과가 귀무가설을 온전히 기각할만한 유의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지만, 관련 지표들 사이에 나름대로 의미있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구체적으로 감성도와 정보소스 선호도 사이에서는 $x^2=5.593$, $p=0.232$, 그리고 감성도와 정보소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 사이에서는 $x^2=1.467$, $p=0.226$ 로 관련 값이 산출되었다. 이처럼 관계의 끈끈함이 통계적인 유의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 지표의 관계가 전혀 무의미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다. 앞서 <표 7~9>의 기술통계량에도 나와 있듯이, 감성도와 의존도가 낮을수록 전문적인 소스(즉, 공식소스와 대중소스)를 선호하면서 동시에 신뢰하는 경향이 짙어지는데, 이렇듯 이들 지표 사이에는 무시할 수 없는 끈끈한 관계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의존도와 정보행태

감성도와는 달리, 의존도를 기준으로 한 검증 결과에서는 여러 관계에서 귀무가설(의존도와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부분적으로 기각할 만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산출되었다. 가령, 의존도와 정보요구의 강도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는 정보요구가 발생하는 세 상황(즉, 일상생활, 의사결정, 문제해결) 모두에서 두 지표의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존도와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요구의 강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x^2=3.689$, $p=0.055$, 의존도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요구의 강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x^2=5.400$, $p=0.020$, 의존도와 문제해결을 위한 정보요구의 강도에 대한 검증 결과는 $x^2=5.126$, $p=0.024$ 로 산출되었다. 다음 <표 14>는 이러한 검증 결과의 근거가 되는 기술통계량을 정리해 놓은 것이다.

<표 14> 정보요구의 강도 : 구성비(%)

	일상생활			의사결정			문제해결		
	소극적	적극적	전 체	소극적	적극적	전 체	소극적	적극적	전 체
고의존 집단	40.3	59.7	100.0	44.8	55.2	100.0	37.3	62.7	100.0
저의존 집단	57.1	42.9	100.0	65.1	34.9	100.0	57.1	42.9	100.0

이어, 의존도와 정보요구의 내용에 대한 검증에서도 세 상황 모두에서 귀무가설(의존도와 정보요구의 내용은 서로 독립적이다)을 온전히 기각하는 수준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존도와 일상생활을 위한 정보요구의 내용 관계에서는 $x^2=10.115$, $p=0.001$, 의존도와 의사결정을 위한 정보요구의 내용 관계에서는 $x^2=10.869$, $p=0.001$, 그리고 의존도와 문제해결

을 위한 정보요구의 내용 관계에서는 $x^2=5.052$, $p=0.025$ 로 검증 결과가 산출되었다.¹⁹⁾ 이러한 결과는 “의존도에 따라 필요로 하는 정보의 내용에 차이가 있다”는 대립가설이 통계적으로 타당함을 입증한다.

다음으로, 의존도와 정보소스에 대한 검증에서도 이들 지표가 귀무가설을 부분적으로 기각할 정도의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가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의존도와 정보소스 선호도 관계에서는 $x^2=16.205$, $p=0.003$, 그리고 의존도와 정보소스 신뢰도 관계에서는 $x^2=10.208$, $p=0.037$ 이 각각 산출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지표들과의 관계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는데, 구체적으로 의존도와 정보소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공식소스 대 비공식소스) 관계에서는 $x^2=3.134$, $p=0.077$, 의존도와 정보소스에 대한 상대적 선호도(대중소스 대 대신소스) 관계에서는 $x^2=1.978$, $p=0.160$, 의존도와 정보소스로서의 도서관의 인식도 관계에서는 $x^2=1.603$, $p=0.205$ 가 각각 산출되었다.²⁰⁾

의존도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마지막 지표는 탐색행태에 관련된 지표 중의 하나인 탐색기능의 활용도였다. 다음의 <표 15>에 나타나듯이, 인터넷 탐색과정에서 “고급탐색 기능을 어느 정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의존도에 따른 집단별 차이를 검증한 결과, $x^2=3.606$, $p=0.058$ 로 산출되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비록 귀무가설(의존도와 인터넷의 탐색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온전히 기각할 수 있는 유의수준($p \leq 0.0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이들 두 지표 사이에 통계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이를 제외한 다른 지표들(탐색어 활용도 혹은 재탐색 선호도)과의 관계에서는 귀무가설을 기각할 만한 유의한 수준의 검증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표 15> 고급탐색기능의 활용도(%)

	부정적	긍정적	합 계
고감성 집단	65.7	34.3	100.0
저감성 집단	49.2	50.8	100.0
합 계	57.7	42.3	100.0
Chi-square 검증결과	$x^2=3.606$, $df=1$, $p=0.058$		

이처럼 성격적 특성을 대변하는 두 지표를 기준으로 집단을 세분하고 이들 집단의 정보행태에서의 차이를 Chi-square 검증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는 감성에 비해 의존성이 정보행태와 보다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비록 모든 관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의존적 성향은 정보요구는 물론이고, 정보소스에 대한 선호도와 신뢰도, 그리고 인터넷에서의

19)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빈도분포에 대해서는 <표 4>를 참조하시오.

20) 이에 대한 구체적인 빈도분포에 대해서는 <표 7>, <표 8>, <표 9>를 참조하시오.

탐색행태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렇다고 해서 감성적 성향을 논외로 칠 정도로 그 영향관계가 미미한 것은 아니었다. 비록 의존적 성향에 비해 그 정도는 덜하지만 감성적 성향 또한 일정 부분 정보행태와 밀접한 관계에 놓여있음을 관련 기초통계량에 대한 검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정리하면, 이 연구에서 암묵적으로 설정해 놓은 귀무가설(성격적 특성과 정보행태는 서로 독립적이다)을 온전히 기각하는 수준의 검증 결과를 얻지는 못하였지만, 교차분석을 통해 성격적 특성이 정보행태와 나름대로의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계측할 수는 있었다. 그렇다면, 기초통계량과 Chi-square 검증 결과에 근거한 지금까지의 논의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학술적 의미는 무엇이며, 향후 이어질 후속연구를 위해 어떠한 여백을 남겨놓고 있는가? 지금부터 통계분석에 근거한 이번 연구를 마무리지면서, 이러한 의미와 한계에 대해 하나씩 점검해보고자 한다.

V. 결론 : 한계와 의미

이 연구에서는 성격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에서 '감성적 성향'과 '의존적 성향'에 주목하면서, 그러한 성격적 특성이 정보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정량적 관점에서 접근해 보았다. 분석 결과, 감성보다는 의존성이 정보행태에서의 차이를 유발하는 변인으로 밀접하게 다가서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 결과는 '의존성' 못지않게 '감성'의 영향 또한 분명하리라는 필자의 추론을 크게 벗어나는 것이었다. 물론 분석 결과만을 놓고 볼 때 "필자의 가설이 잘못되었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결과가 도출된 까닭에 대해 이번 연구의 설계와 관련하여 몇 가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

필자는 무엇보다도 핵심 변인인 감성도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가 적절했는지, 또한, 정보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설문)이 적합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본으로 선정했던 대상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였는지에 대해 하나씩 돌아보면서 스스로 점검해 보고자 한다. 이러한 점검은 이 연구에서 밝혀진 주요 결과의 보편적 적용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설정하고, 나아가, 동일 주제로(그러나 보다 확장된 규모로) 진행하고자 하는 후속연구에서 유사한 시행착오를 방지함으로써 후속연구의 방법적 타당성과 결과의 보편성을 동시에 제고해 보자는데 뜻이 있다.

먼저, 감성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했던 도구의 문제부터 살펴보자. 이번 연구에서 감성도와 의존도를 측정하는데 활용했던 Harren의 도구는 엄밀히 말해 성격유형을 기능하기 위한 도구이다. 따라서 의존도 측정을 위한 문항은 차치하고 감성도 측정을 위한 문항이 이번 연구에서 필자가 의도했던 '감성'의 측정도구로서 과연 적절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왜냐하면 필자가 측정하고자 했던 감성적(affective) 성향은 인지적(cognitive) 성향의 상대 개념으로서 Harren이 분류하고 있는

직관적(intuitive) 성향과는 다소 거리가 있기 때문이다. 물론 감성도 측정을 위해 필자가 사용했던 문항은 고향자가 한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소 수정하여 만든 것이기는 했지만, 여전히 감성보다는 직관성을 측정하기 위한 도구라는 점에서 내재적 한계가 존재한다.²¹⁾

이에 '주관적' 데이터라는 점이 걸리긴 하지만 설문에서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향'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활용하여 정보행태와의 관계를 다시 검증해 보았다.²²⁾ 이렇게 검증한 결과는 Harren의 도구를 활용해 검증했던 기존의 결과와는 현격한 차이를 보인다. 예를 들어, 감성적 집단과 이성적 집단은 '정보요구의 내용'에 대한 기술통계량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각주의 표 16 참조).²³⁾ 그리고 이러한 차이는 Chi-square 검증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일상생활'의 경우 $x^2=9.346$, $p=0.002$, '의사결정'의 경우 $x^2=3.855$, $p=0.05$, '문제해결'의 경우 $x^2=4.282$, $p=0.039$ 로 산출되어, $p \leq 0.05$ 수준에서 귀무가설(성격적 특성과 정보요구의 내용은 서로 독립적이다)을 기각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검증 결과는 앞서 설명했던 (표 3 : 정보요구의 강도)의 기술통계량과 그에 근거하여 실행된 Chi-square 검증 결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²⁴⁾ 물론 이러한 차이가 정보행태를 대변하는 모든 지표에 대한 검증 결과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서의 경우처럼 감성도를 측정하는데 어떠한 기준(혹은 도구)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소집단의 분류가 달라질 수 있고 그에 따른 집단별 정보행태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면, 연구 결과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번 연구의 결과와 관련되어 점검하고자 하는 두 번째 문제는 정보행태에 관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사용했던 방법, 즉, 설문조사의 형식과 내용이 과연 이번 연구의 목적에 적합했는지에 대한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정보행태를 연구하는 작업은 워낙 조사의 범위가 넓고 내용의 깊이 또

21) 그럼에도 불구하고 Harren의 문항(즉, 고향자의 문항)을 사용한 까닭은 심리척도를 위해 개발되어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존 도구들 가운데 이 연구의 의도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여러 심리학자들에 의해 추천되어졌고, 필자의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보다 적합한 도구를 발견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었다.

22) 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는 스스로 감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49.1%, 스스로 이성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50.9%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누어 이들의 정보행태를 Chi-square 검증법에 의해 교차분석하였다.

23) <표 16> 스스로 판단하는 자신의 성격에 따른 정보요구의 내용 : 상대적 선호도(%)

	정보요구의 내용 : 상대적 선호도								
	for 일상생활			for 의사결정			for 문제해결		
	전문	경험	합계	전문	경험	합계	전문	경험	합계
감성적	38.7	61.3	100.0	58.6	41.4	100.0	50.6	49.4	100.0
이성적	17.2	82.8	100.0	73.3	26.7	100.0	66.7	33.3	100.0
전 체	27.2	72.8	100.0	65.4	34.6	100.0	58.0	42.0	100.0

24) 참고로, <표 3>의 기술통계량에 근거한 검증 결과는 '일상생활'의 경우 $x^2=0.234$, $p=0.629$, '의사결정'의 경우 $x^2=3.131$, $p=0.077$, '문제해결'의 경우 $x^2=0.298$, $p=0.585$ 이었다.

한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 설문은 기본이고 면담과 관찰 또는 실험까지 다양하고 복합적인 방법이 동원된다. 정보요구라는 것이 가상의 질문에 대한 단순한 답변을 통해 도출해내기 힘들 뿐만 아니라, 특히, 정보추구나 탐색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태적 특성은 관찰이나 실험이 수반되지 않고서는 명확하게 밝혀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문조사에만 의존하여 정보행태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던 이번 연구는 기존연구와 마찬가지로 정보행태의 외양을 개괄적으로 스케치하는데 그칠 뿐, 내면적 복합성과 상황의 변화에 따른 다양성을 파악해 내지는 못하고 있다. 물론 이번 연구가 일종의 사전조사로서 파헤치고자 하는 '현상'에 대한 개괄적 검증의 의미를 지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관련 데이터 수집이 '불충분하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방법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시도, 즉, 면담이나 관찰 혹은 실험 등의 추가 모색이 필요하다. 이에 더해, 설문지 자체의 수정 또한 필요해 보이는데, 특히, 탐색행태를 파악하기 위해 제시된 질의들이 성격적 특성에 따른 탐색행태의 차이를 밝혀내는데 분별력이 약한 만큼, 후속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하고자 하는 문제는 조사를 위해 표본으로 선정했던 집단이 이번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이번 연구는 대학 신입생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있다. 조사대상의 선정 이유에서도 밝혔듯이, 동일한 조건에서 일본의 사례와 비교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외변인을 줄이기 위한 조치였다. 더불어 정형화된 고교 시절의 학습패턴을 벗어나 이제 막 대학의 문에 들어선 신입생들은 자율적 분위기에서 아직 전공의 영향을 덜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인적 성격의 차이는 물론이고 그에 따른 정보행태의 차이를 '순수하게' 드러낼 것이라는 기대에서 선택한 조사대상이었다.

그러나 이들 신입생을 대상으로 하여 '감성'을 갖대로 하는 집단분류를 시도하고, 정보행태를 파악하기 위한 설문을 시도한 것이 과연 논리적으로 적절했는지는 의문으로 남는다. 연령적으로 볼 때 아직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중고교 시절을 정형화된 일상으로 점철하고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문제해결을 시도해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집단이기에 질문에 대한 그들의 답변이 '경험'보다는 '추론'에 의존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도서관의 이용 경험이 미미한 집단을 대상으로 목록이나 사서의 활용도와 유용성을 파악하고자 한 것은 논리적 한계의 예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결과의 신뢰성을 높이려면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다양한 표본의 선정을 철저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여러 한계에도 불구하고, 성격을 구성하는 주요한 요소인 의존성이 정보행태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통계적으로 밝혀낸 것만으로도 이번 연구는 나름대로의 의의를 갖는다. 물론 이번 연구에서 필자가 보다 주요하게 판단했던 감성의 의미와 정보행태에 대한 영향 관계를 제대로 입증해 내지 못한 것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그러나 감성이 정보행태를 가능하는

중요한 변수일 것이라는 필자의 믿음은 지금도 여전하다. 이 연구를 마무리지면서 이번 연구가 갖는 내재적 한계에 대해 스스로 점검해 본 까닭도 바로 이러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어질 후속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고 감성적 요소가 정보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보다 정교한 접근을 시도할 것이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